삼성전자 반도체도 '흔들'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제330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1931.46 (−9.91)

코스닥 662.88 (−6.99)

금리(국고채 3년) 1.66 (+0.01)

환율(원·달러) 1183.50 (−2.50)

이재용 홍완선 왜 만났나

삼성물산주총 직전 밀회 뒤 "합병 찬성" 원칙없는 국민연금 운용에 불안감 가중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사진)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SK와는 다른 절차로 찬반결정을 진행했다"며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때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국민연금은 결국 삼성의 '국수주의'적인 방어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은 사실상 대세를 가르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총이 열리기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특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사실상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의결권전문위는 "과거의 선례나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입었다. 합병주총이 열린 지난 7월17일에서 삼성물산 주식이 거래정지된 8월26일까지 6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대형마트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한 MBK파트너스에 최대 1조원 가량 투자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에 7조2천억원을 지급하고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했고, 여기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인수대금이 거액인데다, 투자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7조2000억원의 인수대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연금이 테스코의 '먹튀'행각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단체는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번 투자와 관련한 논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형제 간 경영권분쟁을 겪은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7.38%) 롯데칠성(13.08%) 롯데하이마트(12.46%) 롯데푸드(13.49%)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연금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국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 재산 6000억원의 손실을 보고서도 아무런 의사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 롯데사태에서도 수백억원씩의 손실을 보고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강화 필요성을 한때 제기했다가 슬며시 꼬리를 감춘 바 있다.

/차기태·임은정·김보배 기자 folium@

지난달 3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모델들이 '루나' 단말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갤럭시' 흔드는 '루나'

SKT 40만원대 전용폰 돌풍 갤럭시노트5 수요 급속 잠식

SK텔레콤이 국내 중견기업과 손잡고 기획 생산한 40만원대 중저가폰 '루나'가 출시 열흘 만에 2만5000여대가 팔리면서 삼성·LG등이 군림하던 통신기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제조사에게 빼앗겼던 이동통신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루나의 기획과 위탁생산을 계기로 단말기 제조의 주도권을 손에 쥔 SK텔레콤이 제조·이동사 간 구조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루나를 출시하기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럭시 노트5(SKT 32기가 모델 기준)는 약 6300대가 팔렸다. 하지만 루나의 판매가 시작된 이달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판매량은 약 5800대로, 하루평균 500여대가 줄었다.

반면 루나는 지난 4일 출시와 동시에 하루평균 2500만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출시 열흘만에 2만5000여대 이상을 판매했다.

루나는 출시와 동시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출고가 40만원대의 보급형 모델로서 프리미엄폰 수준의 고사양의 스마트폰인데다, 기존 모바일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루나의 기획과 디자인은 PC제조사인 TG앤컴퍼니가, 생산은 애플의 위탁생산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이, 감수는 SK텔레콤이 각각 맡아 탄생했다.

5.5인치 고화질(풀HD) 디스플레이, 전면800만, 후면1300만 화소 카메라, 3GB 램(RAM) 등 사양을 갖췄다. 아이폰 6+와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에 범용성이 높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사양의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단말기의 성능은 이미 상향 평준화 됐다는 점에서 루나와 같이 OEM방식으로 탄생하는 모델들이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 제조사 중심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이 통신사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브랜드 인지도가 강한 제조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통신사가 유통 구조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A problem whether to increase it or not to increase it.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crease the base interest rat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RS) or not is going to be made around at 3 in the morning on the 18th Friday in Korean Time. The FRS will hold FOMC for 2 days from the 16th in American Eastern Time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increase the rate of the Federal short term loan.

The FRS kept the Federal Fund at the lowest for about 7 years since they lowered it to 0~ 0.25% right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December 2008.

According to the foreign media like the Reute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so on, the experts in the U.S financial market have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the FRS is going to proceed with the increase of the base interest rate. Personnel with rights to vote at FOMC have different opinions upon the increase in September as well.

The reason why there is an unprecedented dispute over the interest rate increase is because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nflation that, we can say, actually indicates the decision on the interest are showing two different shapes.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18일(금요일) 새벽 3시쯤 판명된다. 연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단기대출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0~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7년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지를 두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을 정도로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금리 결정과 관련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갈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회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전국의 5개 적십자병원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사건**은 치정 살해가 아닌 강도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해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122배나 돼 위화감 발생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홈플러스**가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에 대한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 **국내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조산이나 자궁내 발육 지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간에서 성인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했다.

정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창군 이래 최초로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대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이를 두고 3사관학교의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임 합참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

▲ 오는 17일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하루 전인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일본**이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슈 지방의 아소화산까지 대분출하는 재난을 맞고 있다.

▲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직후 국유기업인 중국중철과 중철이국을 합병하고 부실기업 퇴출 작업을 시작했다.

▲ **독일 정부**는 밀려드는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잠정 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경 통제를 얼마 동안 계속할지나 앞으로 난민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 **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에 나선 가운데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 14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만든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의 1호 직영점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매장에서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전,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을 만났다"며 "합병 공정성에 대해 문의하고 주주환원정책과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SK텔레콤**이 국내 중견기업과 손잡고 기획 생산한 40만원대 중저가폰 '루나'가 출시 열흘 만에 2만5000여대가 팔리면서 삼성·LG등이 군림하던 통신기기 시장에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LG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해외 신인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삼성전자와 롯데칠성, 영풍 등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주'에 대해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황제주 타이틀을 고수하는 이들 기업의 주식액면분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늘어난 반면 국내 주요 10대 그룹의 시총 합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삼성, 현대차 그룹 등의 시총은 줄어들었고 GS, 한화, 롯데 등은 늘어났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을 비롯한 금융자회사 매각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건설사들이 **브랜드타운**을 형성한 곳에 후속 분양을 시작하면서 텃밭다지기에 한창이다. 랜드타운 아파트의 경우 인근 다른 부동산에 비해 규모가 커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도까지 높아져 가격의 선도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 유통부문 대기업의 **기부금**이 국내 대기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매출 1위였던 이마트는 지난해 10조8000원억의 매출을 올리고도 98억원(0.090%)을 기부해 대형마트 3사 중 기부금 비율이 가장 낮았다.

▲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2016년)를 기념하고자 마련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본격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를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한노총, 진통 끝 노사정 타협안 '승인'

금속노련 위원장 분신 시도… 민노총 등 반발 여전

14일 오후 3시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였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휘발유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진통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의 분신시 다른 노조원이 소화기를 뿌려 다행히 몸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의장 내부는 바닥에 휘발유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져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13일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1시간 동안 대타협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중집위에는 이번 사안에 반대해온 김 위원장을 포함해서 반대측 노조원 수십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중집위가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행부는 반대팀 노조원들에게 다시 재개되는 중집위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분신 시도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예고없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제대로 이 상황을 본 사람은 없었다. 주변에 있던 금속노련 노조원들도 김 위원장의 분신을 눈치채지 못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소화기를 뿌려 회의가 중지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만 위원장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 회의를 통해 지난 13일 확정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받을 계획이었다. 반면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바로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 지침을 포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노사정 대타협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그리고 이밖에 민주노총 일부 노동계는 이 노사정 대타협안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타협안에 강하게 반대 해 온 금속노련이 14일 중집위에서 의사표현의 하나로 김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日, 홍수·지진 이어 화산까지 대분출

규슈 아소화산 제1화구 분화

일본이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슈 지방의 아소화산까지 대분출하는 재난을 맞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께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산의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해 분연이 화구에서 2000m 높이까지 분화했다.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을 2(화구 주변 규제)에서 3(입산 규제)으로 상향 조정해 큰 분석이 화구에서 1km 이상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한 경계를 호소했다. 구마모토현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14일 오전 9시 43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14일 오전 9시 48분께 아소산에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 /연합뉴스

나카다케 제1화구는 지난해 8월 30일 분화 경계 레벨이 2로 격상돼 화구에서 반지름 1km 이내의 출입을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높이 1000~1500m급의 분연이 간헐적으로 지속돼 오이타현 등에 광범위하게 화산재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다. 야마다니 에리코 방재담당대신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상청은 경계 레벨을 상향 조정한 데 앞서 기존 규모를 웃돈 분화시 등을 발표하는 '분화속보'를 8월 운용 개시 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 10일 닛코시에 600㎜가 넘는 비가 내리고 강둑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하는 등 18호 태풍 '아타우'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후 3일만인 지난 13일 태풍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도쿄만과 홋카이도에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해 주민불안이 높아졌다.

/송시우 기자 swsong@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앞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할 것"

새누리당 법안 당론 발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전날 타결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며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 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험난한 입법 과정을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8대 8 동수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이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합의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중국 국유기업 개혁 드라이브… 중국중철·중철이국 합병

실적저조한 '좀비' 국유기업 퇴출작업도 시작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직후 국유기업인 중국중철과 중철이국을 합병하고 부실기업 퇴출 작업을 시작했다.

14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철도건설업체인 중국중철과 자회사인 중철이국은 공시를 통해 자산합병 계획을 밝혔다. 이날부터 두 기업은 증시 거래가 정지됐다.

전날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의 합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회사의 합병은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른바 '좀비' 국유기업 퇴출작업도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포스트에 따르면 장시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토록 하겠다. 주식 및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공개가격으로 기업자산을 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생 능력이 없는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유기업 개혁은 공개성·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 정책·방안·조치·과정을 모두 대외 공개토록 함으로써 절대 이번 개혁의 혜택을 특정 개인의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개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0년 결정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송시우 기자

최경환, 중진공 신입채용 부당 압력 의혹

서류 조작·면접 바꿔치기로
2299위에서 176위로 '껑충'
최경환 "사실무근" 전면 부인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도표를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반발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바로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최 부총리"라며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소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으로부터 A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A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A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 부총리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했다.

이 의원은 "서류 심사에서 8위였던 취업희망자는 무난히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때문에 아예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면접에서 외부심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 전 이사장의 지시로 A씨가 합격이 됐다. 당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배후라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 부총리, 박 전 이사장, 김범규 전 부이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전순옥 의원도 가세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되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줘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을 향해 고성을 쏟아내며 충돌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임채운 현 중진공 이사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감사원 요구대로 관련 실무자를 징계처분 했다.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해당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명자료를 통해 "그 직원이 경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첫 3사 출신 합참의장 탄생

이순진 2작전사령관 내정
3사관학교 위상변화 기대
육사출신 참모 통제 우려

창군 이래 최초로 3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이를 두고 3사관학교의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임 합참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출신의 최연희 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3사 14기인 이순진(사진) 2작전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6기인 1군사령관을, 공군참모총장에는 공사 30기인 정경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사 36기인 김현집 3군사령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제1군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을, 제3군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엄기학 합참 작전본부장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을 내정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합참의장 내정자는 대구, 육군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은 각각 충남, 공군총장은 경남 출신이다. 1군·3군사령관은 각각 서울, 제2작전사령관은 충남이다.

육사 출신이 독점해 온 합참의장 자리에 해군 출신에 이어 3사 출신이 내정된 것은 거듭된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사 출신에 치우친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군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이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이다. 다만 최 의장이 해군 출신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지 물음표가 남는 상황에서 이 신임 의장도 3사 출신이라 육사 출신 참모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육사 출신 참모들이 스스로 따라줘야 한다. 이 신임 의장이 아무리 잘해도 육사 출신 참모들이 안 따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與 '포털국감' 전날 네이버·다음 불러 기선제압?

새누리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16일 뉴스 편향성 토론회 열어

오는 17일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하루 전인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일 '인터넷 뉴스의 오늘과 내일'이란 이름의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의 유통 구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부원장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김무성 대표의 지시로 준비됐다. 여의도연구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자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연구원의 토론회는 국감을 앞두고 기선제압의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동시에 출석한다. 여의도연구원은 국감에 앞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포털이 인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4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평가와 대안'이란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이 토론회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서 김동윤 대구대 교수는 여의도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기사의 제목만 보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이 공정성을 지적하는 등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9일 "제목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정치적 중립 명백히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홈플러스, 52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적립식 포인트 할인액 과세 관련
재판부 "에누리액 아닌 마일리지"

홈플러스가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멤버십 쿠폰 할인분에 붙은 세금 5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홈플러스는 2002년부터 '훼밀리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구매금액 1000원 당 5점씩 적립해주고, 점수가 2000점이 넘어가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할인 쿠폰을 주는 회원카드였다.

홈플러스는 2013년 "훼밀리카드 할인 쿠폰으로 깎아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년 반치 세금 2000여억원에서 5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업체가 물건을 팔 때 판매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면 그 금액(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액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주로 할인 쿠폰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업체가 전단으로 1만원 짜리 물건의 1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해 소비자가 이용하면 1000원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매출 9000원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할인 쿠폰 거래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상 에누리액은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그 즉시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며, 홈플러스처럼 앞선 구매로 적립한 포인트로 다음 거래에 할인을 해주는 것은 비과세대상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마일리지'란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래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줘 그다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를 선택한 것"이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이었던 영국 테스코는 이달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2000억원에 매각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은 매각차익이 5조원에 이를 정도로 과하다며 매각을 규탄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광교사거리 출근길 상습 정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인근 광교사거리가 정체를 빚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와 교통량에 비해 짧은 월드컵경기장 방향 좌회전 신호로 출근 시간 교통난이 더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혐의' 김황식 전 하남시장, 긴급 체포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체포됐다.

14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은 재임시절 하남시 초이동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김 전 시장 시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시장은 민선 4기 하남시장을 지낸 인물로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와 동명이인이다. /연미란 기자

고교 수학여행비 최대 122배 차… "위화감 발생 우려"

최고 306만원·최저 2만5000원

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해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306만원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경기 용인고는 야영으로 수학여행 계획을 짜면서 2만5000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가 122배 차이를 보인 셈이다.

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다.

이들 학교의 평균은 231만9703원이다.

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 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 이들 10개교 학생들은 춘천, 인제, 가평, 태안, 영주 등 가까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방산 비리' 피의자 투신… 두번째 사망

'방산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40대 연구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연구원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 소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44)씨가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는 아파트 23층 주방쪽 발코니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가 부인에게 남긴 문자메시지에는 "1년 넘게 시달리다 보니 힘들다.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같아 힘들고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수사하는 현궁 비리의 주요 피의자로 지난달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마무리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합수단은 LIG넥스원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80억여원 규모의 현궁 성능평가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합수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다만 "김씨에 대한 조사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사건 관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올 1월에는 방산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예비역 해군 소장 함모씨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檢,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서면조사

처남,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 8억원 받아
문 의원 "청탁한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검찰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서면 조사에 돌입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쟁점을 정리하고 나서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정기국회가 회기 중이고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어 소환조사 전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4년 3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남은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았지만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 의원이 직접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거나 주변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처남이 일하지도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원은 이달 초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당시 처남이 제 처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가 대한항공 인사와 친분이 있던 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취업 문제 등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한진과 브릿지웨어하우스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조 회장 측에게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인 2004년 3월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여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다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도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은 법리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문 의원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처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격렬하고 무리한 운동, 관절부상 주의

생활건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배드민턴, 등산, 야구 등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격렬하고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관절 부상으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목은 접질리거나 삐끗하는 등 가벼운 부상이 잦은 부위다. 통증이 크지 않다면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여 대부분 자가치료를 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발목 부상이 생긴다면 초기에는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치료를 지체할 경우 점차 인대 주변의 연골까지 손상돼 박리성골연골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박리성골연골염'은 뼈의 연골이 벗겨져(박리현상)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관절뼈를 덮고 있는 연골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연골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주로 뼈가 약한 11~21세 사이의 청소년, 남성, 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하중을 많이 받는 발목에서 발병하지만, 무릎, 어깨, 팔꿈치 등 여러 관절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 축구선수가 기도 세리머니를 하던 중 다른 동료 선수들이 축하해 주는 과정에서 무릎이 눌리는 압박으로 무릎 박리성골연골염이 발병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조형준 원장은 "박리성골연골염을 방치할 경우 조각난 연골이 관절 사이에 끼어 또 다른 정상 연골을 손상시

용인분당예스병원의 조형준원장 진료모습.

키거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은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돼 골괴사증과 퇴행성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로 운동으로 인한 외상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거나, 운동 후 관절 주위에 부상을 입은 후 부종,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뚜렷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목이 '찌릿' 거리거나 힘이 풀리는 일이 잦은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질환 초기에는 부상 관절 부위에 체중이 가해지는 행동은 피하고 안정과 휴식, 재활치료를 병행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물리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절 내 조각을 제거하는 관절내시경 수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조원장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 질환의 증상을 성장통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부상 시 작은 통증에도 관심을 기울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통해 심한 손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치선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20개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모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을 다짐했다. /뉴시스

'트렁크속 시신' 사건, 치정 아닌 강도살인

범인, 전과 22범에 도주 능해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사건은 치정 살해가 아닌 강도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주모(35·여)씨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전과 22범의 김일곤(48)씨를 공개 수배하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김씨는 9일 오후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차량 내부에서 지문과 DNA 등이 발견됐다.

김씨는 키 167㎝에 마른 체격이다.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으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다. 범행 후에는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어두운 색 배낭을 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성동 살인사건 수배전단 (신고보상금 : 1,000만원)

경찰이 살해 용의자 김일곤(48)씨를 14일 공개수배 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김씨는 주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어딘가에서 주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쯤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시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A씨는 과거 성동구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곳 지리를 잘 알아 차량을 끌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주씨의 시신에서 특정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애인 등 면식범의 원한관계에 의한 소행으로 봤으나 현재 로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연미란 기자

"버려진 독감백신, 5년간 1400억원"

해마다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지난 5년간 1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버려진 독감백신은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 도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입찰가를 도스당 7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가 백신 공급량 조절에 개입하지 않아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이 지난 8월 한 제약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혀 현 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軍과 함께하는 2015 wonju dynamic

Dancing Carnival

아시아의 리오!
댄싱카니발!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드는
지상최대, 최장의 거리퍼레이드 축제!
총상금 1억 5천! 5분의 승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9.16(수)~20(일)

원주시 따뚜공연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대

개막식
한국전통의날

군악의 날

클래식&합창의날

댄싱카니발의 날

폐막식
댄싱카니발 BEST15 경연

이재용, '삼성 합병 주총' 전 국민연금 접촉

금융위 국감서 합병 과정 재벌구조 문제점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홍완선 국민연금 공단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SK와 SK C&C 합병과정의 문제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 가계부채 급증 문제 등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 본부장에게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을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고위임원을 만나 합병 공정성에 대해 문의했고 주주환원정책과 비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합병 결정은 경영진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구조가 재벌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진은 주주를 대변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합병 추진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다"며 소탐대실로 비유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이뤄졌다"며 "이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재벌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은 끝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옛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전문위원회의 판단 아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직접 찬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원칙을 훼손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게 적시돼 있다. 또한 실무자들이 찬성 의견을 못 붙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본부장은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도를 활용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법률적 협의를 해야겠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본부장과 최 사장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사장에게 "9월 1일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사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후 바로 김 의원은 홍 본부장에게 "최 사장이나 삼성 관계자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최 사장과 달리 홍 본부장은 "8월 말 경 사무실에서 최치훈 사장을 만났다"고 답했다.

엇갈린 답변에 김 의원은 "그렇게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위증하지 말라"며 최 사장을 질타했다.

최 사장은 "9월 1일에는 전화가 왔다. 헷갈렸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달 말 최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LG '에너지솔루션 사업' 해외 적극 알린다

LG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해외 신인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LG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저장(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효율적 사용(전기차 충전 인프라, LED조명 등) 및 관리(에너지관리시스템)에 이르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LG'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LG가 미국 LA공항 터미널에서 선보이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광고. /LG 제공

우선 LG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하루 1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미국 LA공항 국내선 터미널 36곳에 주목도가 높은 70인치 사이니지(Signage)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 기간에 맞춰 사업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LG전자는 이 전시회에 6인치대(가로 세로 각각 15.67cm) N타입 기준 세계최고 수준인 19.5%의 효율과 320W의 출력을 구현한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인 '네온(NeON)2' 등을 선보여 해외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춘, 포브스, 블룸버그 등 해외 유력 비즈니스 주·월간지를 비롯해 솔라 인더스트리, PV 매거진, 포톤 인터내셔널 등 에너지 전문지에도 광고를 게재해 기업고객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LG는 이와 함께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밸류 체인별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한 영문 사이트(www.lgenergy.com)도 개설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에너지솔루션 분야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이들을 활용한 국내외 실증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전자, 끝없는 실적악화… 반도체도 흔들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
반도체 DRAM 값 하락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에 이어 효자 역할을 했던 반도체 부문의 DRAM 가격 하락으로 힘을 쓰지 못할 전망이다.

14일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49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DRAM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고 스마트폰 수익성이 낮아져 원화 약세에도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분기 LPDDR3 대비 20~30% 수준이었던 LPDDR4 가격 프리미엄이 3분기 경쟁사들의 제품 생산으로 1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DRAM사업의 수익성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도 당초 예상보다 8.2% 낮은 3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PC 수요 감소와 윈도 10 무료 업그레이드로 인한 PC 교체 수요 감소로 DRAM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4GB DRAM의 단품 고정 가격은 지난 6월 2.69달러에서 7월 2.25달러로 내려갔고 8월에도 2.06달러로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프리미엄폰 출시에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중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출시 후 4개월 만이다. 올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18%, 화웨이가 16%의 점유율로 1, 2위를 달렸다.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S6 시리즈 모델 가격은 800위안(약 15만원) 내려갔다. 갤럭시S6 32GB(기가바이트) 모델은 4488위안(약 84만원), 갤럭시S 6엣지 32GB 모델은 5288위안(약 99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 2분기 대비 9.6% 증가한 8000만대로 예상되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1% 감소한 2조26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주식회사 C&C

성남지역 관계사 4곳과 사회적기업 지원 추진

SK주식회사 C&C, SK하이닉스, SK플래닛, SK케미칼, SK텔레시스 등 SK 관계사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SK주식회사 C&C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4개 SK관계사와 함께 14일부터 5일간 본사 사옥과 인근 광장에 '행복한 가치장터'를 릴레이 방식으로 개장한다.

이번 행사는 SK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양성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출신이 만든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이 제작한 제품 중 선별된 우수한 제품을 SK구성원과 주변 이웃에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 C&C와 SK하이닉스 사옥 앞 분수대 광장을 시작으로 SK플래닛(15일)·SK텔레시스(16일)·SK케미칼(17일)·SK주식회사 C&C 판교캠퍼스(18일) 등 판교 삼평동에 위치한 SK계열사 사옥 1층 로비가 장터로 변신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현대차, 판결 5년만에 하청 근로자 6000명 정규직 합의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5년만에 노조 측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14일 잠정합의했다.

이날 열린 21차 특별협의에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동조합,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단돈 30만원으로 사무환경 구축 '끝'

LGU+ 'Biz 스카이프' 출시

인터넷전화 기반 클라우드 방식
통화 중 업무자료 실시간 공유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 안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의 사무환경을 스마트하게 구축할 수 있는 '비즈 스카이프' 서비스가 출시됐다. LG유플러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손을 맞잡고 만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전화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방식의 업무용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인 Biz 스카이프를 선보였다.

Biz 스카이프는 LG유플러스의 기업용 인터넷 전화와 MS의 오피스 솔루션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스카이 포 비즈니스는 각종 업무 자료 공유 기능과 화상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각종 MS 오피스 프로그램과도 연동된다. 유선전화, 모바일, 태블릿, PC 등 기업의 모든 통신 수단을 연동한다. 두 회사는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만 약 8개월 동안 협력했다.

Biz 스카이프를 이용하면 음성·화상 통화 중에서도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업무자료를 회사 임직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회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자간 영상 회의도 가능하다. 모든 통신 수단으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회의의 모든 내용을 녹음,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외근 중 회사 밖에서 모바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강문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날 "Biz 스카이프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돼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수천만원 이상이 드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면서 "예를 들어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약 3500만원이 들지만 Biz 스카이프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 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월 6000~5만원 수준인 기존의 기업 인터넷 전화 정액 요금제에 Biz 스카이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14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열린 LG유플러스 'Biz 스카이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KT, 130년 통신 발자취… '국민 이야기' 담는다

총 상금 1300만원 공모전
"수기·사료 후세에 전달"

KT가 대한민국 통신 역사 130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 공모전을 연다.

KT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기관으로 KT의 전신인 한성전보총국의 개국 13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통신 130년 국민 수기 공모전', '통신 사료 융합 예술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통신의 역사는 한성전보총국이 광화문 세종로에서 개국한 188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겪어온 통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A4용지 2매 분량의 수필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다음 달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술작품 공모전에는 예술 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다. 옛 전화기, 전신 등 통신사료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받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설명회를 거쳐 총 19팀의 참가 후보를 확정해 오는 11월23~27일 작품을 접수한다.

두 공모전 수상작에는 총 1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예술 작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에서 대중에 공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올레스퀘어 홈페이지(ollehsquare.k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

14일 서울 광화문의 KT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옛 전화기와 전신 등을 손에 쥐고 환하게 웃고 있다. KT는 대한민국 통신 역사 130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 공모전을 연다. /KT 제공

"브라보! 리스타트 4기 창업가 찾습니다"

SKT, 내달 31일까지 접수

SK텔레콤이 ICT분야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브라보! 리스타트' 4기에 도전할 창업가 공모에 나선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SK텔레콤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그 동안 2013년부터 3기에 걸쳐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SK텔레콤의 ICT역량을 결합, ICT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보! 리스타트 4기에 선정되면 초기창업지원금(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부서와 연계한 판로·마케팅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 10개월간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자금(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아이템의 경우 SK텔레콤과 함께 공동 사업화도 추진된다.

이번 4기 공모는 예비 창업가와 설립 5년이내 초기 창업가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SK텔레콤 '행복창업지원센터'(http://sktincubator.com/bravo)공모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9월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3박4일 워크샵을 거쳐 4기 창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ICT 관련 전 분야에서 참여 가능하나, 특히 SK텔레콤의3대 성장 플랫폼(IoT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생활가치 플랫폼) 사업영역에서 중점 선발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발굴 나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삼성전자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삼성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의 프로그래밍 학습을 장려하고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년, 전공 제한 없이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codeground.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2차 예선은 각각 10월 24일과 11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대회로 진행되며 본선은 2016년 1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치뤄진다.

홈페이지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사전학습 기능도 제공하며 슬로건 추첨 이벤트도 진행돼 총 1000명에게 상품이 제공된다. 또한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체 중 선착순 20팀에게도 간식 쿠폰도 주어진다.

본선 상위 23명에게는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삼성전자 채용전형 시 우대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교에는 1000만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가 지원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LG, 단통법 후 판매장려금 8000억 뿌려

대리점 리베이트 규모 첫 공개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경 기자

포드 "신형 익스플로러 월 500대 판매할 것"

올해 3000대 확보계획·사전계약 500대 이상 완료

"신형 익스플로러는 월 400~500대 판매를 예상한다."

정재희 포드코리아 사장은 14일 서울 대치동 선인자동차 전시장에서 열린 '2016 뉴 익스플로러' 출시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까지 2500~3000대 물량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선적물량이 매번 달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드 측은 현재 완료된 사전계약 물량 500여대부터 최대한 빨리 인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익스플로러는 5세대 부분변경 모델이다. 2.3ℓ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됐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가격은 5600만원이다.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된 것으로 연말까지 유효하다. 공식가격은 5690만원이다.

정 사장은 "이전 3.5ℓ 엔진과 성능·사양은 거의 동일하면서 엔진은 다운사이징 기술을 도입해 배기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익스플로러는 올해 1~8월까지 총 2500대 이상 판매됐다. 포드는 2.3ℓ 에코부스트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3.5ℓ 모델은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는 신형 익스플로러 대기수요와 기존 모델 물량부족으로 감소했던 7, 8월 판매량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6월 460대가 판매됐던 익스플로러는 7월 249대, 8월 16대로 급감했다.

신형 익스플로러에 탑재된 2.3ℓ 에코부스트 4기통 엔진은 최고출력 274마력, 최대토크 41.5㎏·m의 힘을 낸다. 복합연비는 7.9㎞/ℓ(도심 6.8㎞/ℓ, 고속 9.8㎞/ℓ)다.

노선희 포드코리아 이사는 "익스플로러는 수입차 가솔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시장에서 '톱3' 안에 드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 3.5ℓ 모델과 성능·사양은 거의 동일하고 가격은 소폭 인상됐다"고 말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사륜구동으로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노면상태와 주행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차체를 제어하는 지형관리 시스템(TRMS)도 추가했다. 적재공간은 기본 594ℓ를 제공한다. 2, 3열 시트를 접으면 대형 냉장고를 실을 수 있는 2313ℓ로 적재공간이 늘어난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포드 '2016 뉴 익스플로러' 옆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포드 제공

폭스바겐, 자원 24% 절감 성공

친환경공장 프로젝트 '씽크블루 팩토리' 성과

폭스바겐은 '씽크블루. 팩토리'의 성과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14일 발표했다.

'씽크블루.팩토리'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이 2011년부터 전 세계 폭스바겐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약 350명의 친환경 전문가가 투입돼 약 3400건의 생산성 향상·환경 대책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추진 결과,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24.3%를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폭스바겐은 전했다.

폭스바겐의 각 공장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에너지·자원 절감 효과를 얻었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경우 현재의 에너지 소비 양상을 분석해 절감 요소를 찾아내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했다.

또 브라티슬라바 공장에서는 린스제를 사용해 페인트 샵에서 나오는 용액 배출량을 줄였다.

또한 엠덴, 폴코비체, 하노버, 캇셀, 푸네 공장은 에너지 회생 시스템을 도입해 냉각 시스템에서 나오는 폐열로 겨울철 사무실 실내와 식수를 데우는 등 자원 사용을 줄였다.

위르겐 힐데브란트 폭스바겐 노동조합 임원은 "폭스바겐 직원들은 최적의 자원효율성을 위한 경험, 기술적 전문성,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환경 친화적 생산 시스템 구축은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지속적으로 환경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폭스바겐 관계자들이 '씽크블루. 팩토리'의 성과 발표를 기념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폭스바겐 제공

탈리스만
에스파스

르노, IAA 전시 라인업 공개

탈리스만·에스파스·메간 등

르노는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5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에 전시할 자사의 라인업을 소개했다.

탈리스만은 7월 6일 프랑스 파리서 공개 후 모터쇼에 첫 데뷔한다. 외관은 강렬하고 당당한 스타일링이 특징이다. 전장은 4.85m, 전폭은 1.87m, 전고는 1.46m, 휠베이스는 2.81m다. 편의 사양으로는 8.7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감지 제동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탈리스만 에스테이트는 이번 IAA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모델이다. 전장은 4.86m, 전폭은 1.87m, 전고는 1.46m, 휠베이스는 2.81m다. 탈리스만 살룬과 동일한 마감 품질, 사양, 파워트레인이 장착됐다.

르노는 4세대 신형 메간을 IAA에서 최초 공개한다. 메간은 20년 동안 650만대 이상 판매된 C세그먼트 해치백모델이다.

3세대 메간과 비교해, 전면부는 25mm 낮다. 폭은 전방이 47mm, 후방이 39mm 더 넓다. 휠베이스는 28mm 길어졌다. 메간 GT는 앞 범퍼는 넓게, 그릴은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해 스포티한 개성을 강조했다. 후면은 듀얼 크롬 테일 파이프, 공기역학 기술 담은 리어스포일러 등이 적용됐다.

에스파스는 4월 출시된 르노의 그랜드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다. 멀티 센스 시스템이 탑재돼 개인별 맞춤 주행이 가능하다. 이전보다 20% 감소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 등이 특징이다.

카자흐는 올 여름 유럽에 출시된 르노 준중형 CUV다.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이 특징이다. 또 콤팩트한 설계로 시내 주행이 수월하다.

/프랑크푸르트=이정필 기자 roman@

대한항공

필리핀서 집짓기 봉사활동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인 '디딤돌'과 '사나사(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단원 30여명은 최근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6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비콜 지역에서 진행됐다. 비콜 지역은 지난해 7월 태풍 람마순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정용기 기자

6~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현지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황제주' 삼성전자, 주식분할 요구 커져

액면분할 유동성 효과엔 무관심…"주가는 회사 자존심"
김상민 "개인투자자에 단 9.5% 분배…절차간소화 필요"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주'에 대해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황제주인 삼성전자는 시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이유로 황제주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에서는 액면분할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주식분할 유도책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주가는 137만원으로 일반개인이 투자하기엔 부담이 크다.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영풍(133만원), 네이버(66만4000원) 등도 가격이 비싼 우량주로 분류된다.

초고가주의 액면분할 필요성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점차 커지고 있다. 액면분할은 주식 한 주당 액면가를 낮게 조정해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증자와 달리 자본금에 변동이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난다. 액면분할은 기업가치, 실질주가, 재무구조 등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 거래량을 늘려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지난해 6월 4번째 주식분할을 실시했다. 당시 분할비율은 7대 1로 애플의 주식 수는 8억6100만 주에서 60억 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애플의 주가는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한 2014년 4월 이후 23% 상승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1987년, 2000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2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분할한 바 있다. 12일 기준 애플 주가는 개미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114.21 달러다.

김 의원은 "국내 우수 기업의 주가는 초고가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식분할 기피 이유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을 꼽았다.

우량주에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어렵다보니 배당금도 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금은 6조원으로 이 중 배당금 상위 20사와 초고가주 11사의 배당금 총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 배당금 수취 현황을 보면 순수한 일반개인투자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돌아간 것은 단 9.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30.7%, 기관투자자 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11.6%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해야 정부 정책인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주식분할 요건을 완화해 코스피 초고가주 배당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호주머니 불리기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의 부의 증식 기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장법인에 한해 액면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주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대신證, 투자지원금 5000만원 제공

'이루어Dream 프로젝트' 운용수익금 전액 수여

대신증권 크레온이 총 10명에게 500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해 수익금 전액을 상금으로 수요하는 '이루어Dream 프로젝트' 시즌 2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루어Dream 프로젝트는 올바른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주식투자를 통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주어진 10개의 식재료(주식종목) 중 3개를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레시피(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 경쟁을 벌이는 형식이다. 매주 수익률 상위 100명에게는 경품과 함께 주식투자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사연을 보낼 수 있다.

사연을 보내 선정된 10명의 참가자에게는 크레온에서 500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들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주간 지원받은 투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참가자에게 상금으로 수여한다.

크레온 고객이 아니어도 개인투자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달 23일까지 투자레시피를 접수 받는다. 참가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와 이루어Dream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10인은 다음달 27일 크레온과 이루어Dream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이들은 크레온 파트너들이 1대 1 상담을 통해 투자조언 및 종목 추천 등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김상원 크레온영업부장은 "앞으로 크레온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개인투자자들의 즐거운 주식투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 기자

신한금융투자 'KTB스팩공모주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2월 4일까지 스팩(SPAC)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KTB스팩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KTB스팩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은 스팩과 중대형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단위형 펀드다. 투자기간은 스팩의 편입기간 및 청산기간을 고려해 3년 6개월간 운용한 후 청산 예정이다.

이 상품은 주식 30% 이하, 채권 50% 이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로, 스팩 투자 대상은 상장되는 전체 스팩이며 공모주 투자대상은 기업공개(IPO)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주다.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연보수는 1.4%(Class C기준)다. 중도 환매시 90일 미만 이익금의 70%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오해영 투자상품부 부장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스팩이 각광받고 있다"며 "합병에 실패해도 발생한 이자를 투자원금에 합쳐 지급받는 안정적인 스팩과 공모주의 투자성과를 누리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증권 마감시황

14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날 코스피는 9.91p(0.51%) 내린 1931.46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美FOMC 경계감·中증시 불안에 1930 '턱걸이'

코스피지수가 오는 16~1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91포인트(0.51%) 떨어진 1931.46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6.28포인트 오른 1947.65로 개장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9억원, 316억원어치씩 내던져 낙폭을 키웠다. 개인 홀로 50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여기에 장중 중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감에 3% 이상 급락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57%), 섬유의복(-3.37%) 등이 낙폭이 컸고 증권과 의약품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보험은 2.4% 상승했고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 등도 강보합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삼성전자(0.81%), 한국전력(1.25%), 삼성에스디에스(3.72%) 등이 오른 반면 현대차(-0.96%), SK하이닉스(-1.14%), 아모레퍼시픽(-0.28%)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6.99포인트(1.04%) 내린 662.88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1억원, 368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698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2.99%), 의료정밀기기(0.24%), 소프트웨어(0.06%) 등 3개 업종만 올랐다. 방송서비스와 출판매체복제가 3%대로 크게 떨어졌다.

시총 상위종목도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메디톡스, GS홈쇼핑 등이 1%대 하락했다. CJ E&M(-6.53%), 코오롱생명과학(-5.28%) 등은 낙폭이 컸다. 반면 파라다이스(1.64%), 이오테크닉스(1.95%), 컴투스(0.39%) 등은 올랐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0원(0.21%) 내린 1183.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보배 기자

최근 한진이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전액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회사채시장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채시장 투자심리 냉각

수요예측 '미매각' 속출 부정적 등급전망 영향

BNK캐피탈 악재와 정부의 구조조정 드라이브 등에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한진(A-/부정적)이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전액이 미매각됐다.

최근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한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자 등급 하향 위험이 커지면서 회사채 수요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S에너지(AA-/안정적)가 실시한 1000억원 규모의 10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250억원어치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이런 결과는 금리 이점이 적다는 인식에 더해 에너지 업종 전반에 걸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탓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적은 우량 기업들로 수요가 몰렸다. 삼성SDI(AA/안정적)와 CJ제일제당(AA/안정적)의 수요예측은 발행 예정액을 웃도는 수요가 몰렸다.

동원엔터프라이즈(A+/안정적)도 안정적인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덕분에 모집액 1000억원어치를 넘는 수요가 몰렸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전반적으로 BNK캐피탈로 촉발된 여신금융전문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문제가 된 기업뿐 아니라 AA+ 등급인 카드채까지 약세로 거래되는 등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금융기능과 지원 가능성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회사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임 연구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만큼 은행권이 여신심사 기준과 충당금 적립 수준을 강화하는 등 보수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주 회사채시장에선 한국서부발전(AAA)과 태광실업(A), JB금융지주(AA+) 등의 수요 예측이 예정돼 있다.

지난주 수요예측을 진행한 삼성SDI와 한진, CJ제일제당, GS에너지, 동원엔터프라이즈 등은 회사채를 발행한다.

/김보배 기자

"대우證 내년 3월까지 매각"

임종룡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정착 노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을 비롯한 금융자회사 매각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조속한 매각, 매각가치 극대화, 국내 자본시장 발전 등의 원칙에 따라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는 대우증권과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등이다. 이들 자회사에 대해 10월 중 매각공고를 낸 뒤 올해 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KDB대우증권의 보통주 기준 지분 43%(1억4048만1383주)와 산은자산운용 지분 100%(777만8956주), 산은캐피탈 지분 99.92%(6212만4661주)를 보유 중이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자회사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분기 최종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우증권은 KDB산업은행에 지난 2000년 인수된 후 16년 만에 매각이 마무리된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 작업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매각협상전담팀을 꾸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또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정착시켜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구조로 대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인터넷은행 인가 확대 요구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인가 신청 및 심사 상황 등을 보고 기존 발표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올해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가할 방침이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코스피 시총 늘고, 10대 그룹 시총 줄었다

포스코·한진그룹·현대重 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은 늘어난 반면 국내 주요 10대 그룹의 시총 합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주요 10대 그룹의 시총 합계는 653조8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718조9925억원에서 9.06%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10대 그룹의 시총 비중도 지난해 말 60.3%에서 7.03%포인트 하락한 53.2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42% 올랐고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2.94% 상승했다.

시총이 가장 크게 줄어든 그룹은 7개 상장사를 보유한 포스코로 지난해 말 28조6821억원에서 지난 10일 기준 21조580억원으로 29.05% 감소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포스코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주가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 기간 한진그룹(6조8950억원→5조6974억원, -17.36%), 현대중공업그룹(10조8039억원→9조2721억원, -14.17%), 현대차그룹(121조6235억원→106조1013억원, -12.76%) 등의 시총도 대폭 감소했다.

올 들어 갤럭시S6 부진 등에 주가 약세를 이어온 삼성그룹 시가총액도 347조8595억원에서 305조6640억원으로 12.13% 줄었다.

반면 7개 상장사를 보유한 GS의 시총은 지난해 말 9조4071억원에서 12조4868억원으로 32.73% 늘었다. 한화(12조7288억원→16조7486억원, 31.58%), 롯데(21조1852억원→26조9173억원, 27.06%) 시총도 크게 증가했다.

10대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SK네트웍스우선주로 무려 362.07% 올랐다. 이어 SK증권우선주(180.243%)와 GS리테일(148.73%), 삼성중공우선주(122.05%) 등 대체로 우선주가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포스코플랜텍은 올 들어 주가가 50.08%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삼성중공업(-36.84%), 현대비앤지스틸(-36.84%) 등도 큰 폭 떨어졌다. /김보배 기자

하나銀 '논액티브엑스' 서비스 시행

KEB하나은행은 액티브X(ActiveX)가 없이도 기존의 모든 인터넷 뱅킹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의 '오픈 뱅킹' 사이트(open.hanabank.com)에 접속해 논-액티브엑스 보안 프로그램을 한번만 설치하면 윈도10(Windows10) 및 매킨토시 운영체계(Mac OS) 등에서 추가적인 보안 프로그램이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 윈도10의 '엣지(Edge)', 구글의 '크롬(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조회 등 모든 인터넷 뱅킹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 및 저장하는 등 사용자의 인증서 환경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은 액티브X 등 '플러그인(Plug-in)' 보안 방식을 적용해 '논-플러그인(Non Plug-in)' 방식의 HTML5 등 최신 웹 표준 기반의 멀티 브라우저 지원이 불가능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하나카드, 민원발생 최다… 업계 평균보다 2배↑

하나카드가 상반기 카드업계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 민원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3277건으로 평균 468건, 계약 10만 건 당 평균 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하나카드가 전체의 26.5%인 868건, 보유계약 10만 건 당 7.9(28.2%)건이 발생해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카드(680건), 삼성카드(570건) 순이었다. 계약 10만건으로 환산하면 하나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5.4건(19.2%), 롯데카드 4.3건(15.2%) 순이다.

반면 우리카드는 민원 건수가 203건으로 가장 적었고, 신한카드는 보유계약 10만건 당 1.13건으로 가장 낮았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용카드 민원은 제도관련 민원이 31.6%로 가장 많아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카드는 카드사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민원이 증가했고 업계 평균보다도 2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익스트림플레이
ExtremePLAY
광대 폭발! 감동 폭발!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
수상한 흥신소
No.1 연극
찰싹 달라붙어 웃겨드립니다!!
익스트림씨어터1관 OPENRUN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제작 익스트림플레이 작/연출 임길호 협력연출 전이랑
무대/조명디자인 익스트림플레이 음향디자인 정윤석 작곡 이한슬
공연문의 | 익스트림플레이 070 8129 7420

텃밭 다지는 건설사, 가을 후속분양 '한창'

브랜드타운 프리미엄 효과 청약시장 '터줏대감' 톡톡

건설사들이 브랜드타운을 형성한 곳에 후속 분양을 시작하면서 텃밭다지기에 한창이다.

브랜드타운 아파트의 경우 인근 다른 부동산에 비해 규모가 커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도까지 높아져 가격의 선도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선 분양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역내 신뢰를 얻으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후속 단지 역시 청약시장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반도건설(대표 권홍사)은 10월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 Ac-03블록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30층 6개 동 전용 96~104㎡ 480가구 규모다. 2018년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예정)이 도보 1분내 거리에 있고 M버스 복합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이 좋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5차 조감도. /리얼투데이 제공

반도건설의 '반도유보라'는 2006년 첫 분양을 시작으로 9월 현재 33개 단지 2만8271가구가 분양된 김포한강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분양된 브랜드다. 2006년 1차(447가구)를 시작으로 4개 단지 3068가구가 공급됐다.

브랜드타운 아파트는 시세도 주변보다 높게 형성된다.

송도국제도시 터줏대감인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의 '더샵'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에서 1만5147가구를 분양했다. 더샵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는 1323만원선으로 송도국제도시 평균 매매가 1247만원보다 76만원 가량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파주운정신도시에서 2011년 A14블록 운정신도시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3개 단지 5146가구의 롯데캐슬 벨트를 조성했다. 부동산 114 REPS자료에 따르면 전체 물량(3만1621가구)의 20%에 육박한다.

롯데건설은 이달 추가로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내에서 야당역 도보권인 한빛마을의 마지막 물량이다. 전용면적 59~91㎡ 11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체 가구 중 약 82%가 중소형 타입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다.

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대표 정창선)과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선전이 돋보인다. 중흥은 2012년 1차를 시작으로 10개 단지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했다. 중흥건설은 10월 3-1생활권에서 1030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테크노밸리는 EG건설(대표 공병탁)의 텃밭이다. EG건설은 9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아산테크노밸리이지더원5차'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5~84㎡ 1356가구 규모다.

앞서 분양한 1~4차와 함께 대단지를 형성할 전망이다. EG건설은 아산테크노밸리 일대에 6개 단지를 지어 8000여 가구에 달하는 'EG the 1' 단일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분양이 활발한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는 삼성물산(리조트·건설부문 대표 김봉영)의 '래미안타운'이 조성된다.

삼성물산은 10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1층 12개동 전용 59~123㎡ 1009가구로 이뤄졌다. 래미안전농크레시티(2397가구), 답십리 래미안 위브(2652가구)와 함께 6000여 가구의 래미안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2015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公, 복지포인트 잔치

1인당 평균 200만원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박완수)가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이 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1029명에게 21억1742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1인당 평균 206만원이다.

지난해의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국토교통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급한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91만원)보다 2.3배 더 많다.

국토부 산하 16개 기관은 지난해 임직원 5만5544명에게 506억75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1인당 평균 91만 2343원이다. /박상길 기자

LH, 저소득층용 매입임대 2.9% 중대형

85㎡ 초과 1784가구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대형 면적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1784가구에 이른다.

LH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이른다.

LH가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3만242가구(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가운데서도 약 2.5%인 752가구가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다. /박상길 기자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 내달 분양

효성건설

1420실 규모·잠실까지 10분 상가 '한스 에비뉴'도 분양

효성건설(대표 김영배)은 10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에 오피스텔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0~84㎡ 1420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1~3층에 들어서는 상가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 한스 에비뉴'도 동시에 분양된다. 1420실 오피스텔 고정수요와 인근 아파트 3만7000여 가구를 배후수요로 갖춘 대형상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상가의 각 층은 아웃도어 스트리트 형태로 지어진다. 잠실과 강남을 각각 차량으로 10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10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 투시도. /효성건설 제공

LH, 주택설계용역기간 140일로 단축

준공대금 조기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14일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완료시 준공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완료시점이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LH는 또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과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했다.

/박상길 기자

공영홈쇼핑은 대주주 전용?

농협경제지주·중앙회 등 대주주 제품만 집중 편성 영세기업 판로 개선 시급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사진)의 방송이 대주주 관련 상품으로 편중됐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며 87%의 방송을 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중앙회가 유통한 제품을 편성했다.

송 의원은 "영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취지로 내세운 공영홈쇼핑이 초기부터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난했다.

공영홈쇼핑은 개국한 올 7월 14일 이후 총 613번의 농축수산식품을 방송했다. 이 중 농협경제지주사가 벤더로 참여한 상품을 387번, 수협중앙회가 진행한 상품을 161번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이 개국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올린 223억원의 매출 가운데 농축수산품 매출은 약 90억원 수준이다.

송 의원 측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삼인, 목우촌 등의 제조사인 농협홍삼과 농협목우촌은 공영홈쇼핑의 2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의 계열사로 매출액 또한 높아 영세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협홍삼의 지난해 매출액은 526억원이며 농협목우촌의 지난해 매출은 5078억원이다.

특히 농협홍삼이 제조하는 홍삼제품은 개국이후 총 23번 방송됐고 시간상으로는 1220분을 방송했다. 이는 전체농수산식품 방송 중 최장 시간 방송에 해당된다.

한삼인과 목우촌은 이미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기존 홈쇼핑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제품들이다.

송 의원은 "한삼인, 목우촌 등의 업체보다 더 판로확대가 시급한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공영홈쇼핑은 대주주 상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홈쇼핑이 판매경로의 부익부 빈익빈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유지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국화 만발한 에버랜드로 오세요" 14일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포시즌스 가든에 1000만 송이 국화가 만발했다. 에버랜드는 '국화'로 만든 이색 토피어리 작품을 이달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달간 장미원에 특별 전시한다. 전시에는 유령과 호박, 악마 등 핼러윈을 상징하는 작품부터 고양이, 달팽이, 하트, 버섯까지 30여 점이 공개된다. /에버랜드 제공

'홈앤쇼핑' 갑질로 9억3000만원 과징금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판매촉진 행사 명분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8개 업체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중 한 업체는 혼자서만 판촉행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명동거리 기업형노점 퇴출 추진

올해 노점상 실명제 도입

서울 중구청(청장 최창식)이 올해 안으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킨다.

최창식 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은 중구에는 약 1300여 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다. 이는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대나 매매 등을 일삼는 기업형 노점이 속출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영업하는 상점 상인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구청은 이에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적극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점상 실명제는 1인 1노점에게 3년간 도로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억원이 오갔던 노점 임대, 매매 등은 원천 봉쇄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넘어서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이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노점상 등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11월부터는 실명제 등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최창식 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점을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가칭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는 대상자가 노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년간의 영업을 통해 자활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재선정해 교체한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남대문시장의 노점중 30개 내외를 이들에게 할당해 시범 운영한 후 대상 지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중기청, 대통령·국회에 '엉터리 보고' 지적

중소기업청이 대통령과 국회에 추진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하겠고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기청이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 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했다"고 질책했다.

해썹 지정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증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2011년 109건에서 2014년 1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품목별 위반 현황을 보면 김치류(100건), 수산식품류(63건), 어묵(61건), 만두(41건) 등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매출에 비해 기부금은 저조

이마트, 매출은 1위 기부금은 가장 적어

유통부문 대기업의 기부금 평균이 국내 대기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등 6개 부문 17개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61조951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은 507억원으로 매출액의 0.082% 수준이다.

공기업을 뺀 국내 100대 기업의 평균 기부금 비중은 매출액의 0.14%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매출 1위였던 이마트는 지난해 10조8000원억의 매출을 올리고도 98억원(0.090%)을 기부해 대형마트 3사 중 기부금 비율이 가장 낮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매출액의 0.149%, 0.094%를 기부했다.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도 지난해 매출 7740억원을 올리고 3200만원(0.004%)을 기부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기부금 비율을 보였다.

/김성현 기자

커피맥주, 알코올 중독·기억상실 유발

시중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커피 맥주'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억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국내에 수입된 커피 맥주는 총 38건이며 맥주의 커피 함유량은 0.09~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판매되며 포스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GS홈쇼핑, 유커대상 O2O플랫폼 '한하요우' 론칭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14일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대상으로 하는 O2O 플래폼 '한하요우'를 론칭하고 유커 관련 신규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커들이 필요로 하는 '여행정보'와 '쇼핑'이라는 양대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비스다.

GS홈쇼핑은 인기 있는 한국상품과 GS홈쇼핑의 히트상품을 모바일앱으로 편리하게 구매하고 숙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남성복 '갤럭시' 새 모델 차승원 발탁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은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GALAXY)'의 가을겨울(F/W)시즌 모델로 배우 차승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차승원은 F/W 시즌 출시한 고기능성 상품인 '사르토리얼 테크(Sartorial Tech)' 라인 홍보는 물론 홍보 영상 출연, 이벤트 활동 등 갤럭시 홍보대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제공

"부산주당을 잡아라"

참이슬 16.9·순하리 처음처럼·윈저 더블유아이스 등 지역색 강한 부산 교두보 삼아 전국으로 판매망 확대

부산 지역 주류업계가 데스트베드(Test-Bed)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을 교두보로 삼아 전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성공한 제품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최근 참이슬16.9을 부산지역에 먼저 선보였다.

부산이 저도수 트렌드를 이끌어 온 만큼 저도수의 참이슬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여 부산에서 인정받겠다는 의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참이슬16.9는 특허공법인 천연 대나무 활성 숯 정제공법을 적용해 깔끔한 목 넘김과 부담 없는 향, 숙취가 없는 깨끗한 맛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참이슬 16.9는 부산에서의 성장을 발판으로 향후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지난 3월 알코올 도수 14도의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를 부산·경남지역에 첫 출시하고, 이곳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전국 판매망을 넓혔다.

순하리 유자는 천연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을 첨가해 새콤달콤한 맛으로 부산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제품과 맛에 대한 평가들이 전파되면서 품귀현상까지 빚었다. 5월에는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전국에 과일 소주 열풍을 이끌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3월 선보인 35도 저도 위스키 '윈저 더블유 아이스(W ICE by Windsor)'도 부산지역을 먼저 공략해 시장을 확대한 사례다.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첫 선을 보인 이후 한달 만에 3개월치 재고가 소진돼 항공 운송을 동원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지역 출시 4개월(3월~6월)만에 누적판매량은 총 2만2420상자(1상자=450㎖×20병)에 달했고 제품 취급 매장 수도 3000여 개로 늘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디아지오코리아는 6월 가정용 제품을 내놓았으며 8월부터는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했다.

국내 위스키 업체 골든블루도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40도 벽을 깨고 36.5도짜리 위스키 골든블루를 내놓은 이후 꾸준히 부산·경남권에서 호응을 얻으며 침체된 위스키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이 주류시장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 주류업계는 전국적인 술 시장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고 지역색이 강한 부산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자도주(自道酒)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해 호의적이기도 해 이곳에서의 성공이 전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탈모방지샴푸, 효과 입증된 제품은 4개뿐

의약외품허가·임상시험 연결돼있지 않아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실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건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려자양윤모샴푸액과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 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다.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으로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됐다.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탄산음료, 하루 두 캔 마시면 당 과다 섭취

탄산음료를 비롯한 과일·채소음료 등에 당류가 많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 1회 제공량 당 평균 당 함유량은 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루 섭취 열량이 2천㎉라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50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스터피자, 美 진출 8년만에 가맹사업 시작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회장 정우현)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에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인 부에나파크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미국 진출 8년만이다.

이번에 오픈한 미스터피자 부에나파크점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카운티의 상업 중심지역인 부에나파크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430㎡(약130평)로 미스터피자의 100% 수타도우로 만든 피자와 정통 이탈리아 조리법과 소스를 기본으로 한 10여 종의 파스타, 에피타이저, 디저트 등의 메뉴를 판매한다.

내년 담배세수 5조8000억원 늘어난다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에는 5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뱃세는 올해 11조1717억원, 내년에는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의 담뱃세 6조7425억원에 비해 올해는 4조4292억원, 내년에는 5조8659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3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측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연맹 측은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LG생건 '슬로우 코스메틱' 시장 공략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다비(DAVI) 브랜드 차별화를 강화해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슬로우 코스메틱(Slow Cosmetics)' 시장을 공략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비는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3040 여성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다.

대표 제품은 '다비 에이지 디파이 버건디 티 세럼'으로 해발 1천600m 청정지역에서 직접 찻잎을 채취해 3천650일의 기다림으로 완성한 버건디 티 성분을 함유했다.

LG생활건강은 자연 그대로 얻은 재료를 정성스러운 핸드메이드 제조기법과 오랜 시간으로 완성하는 다비만의 고급스러운 차별화를 부각했다. 국내 내추럴 프레스티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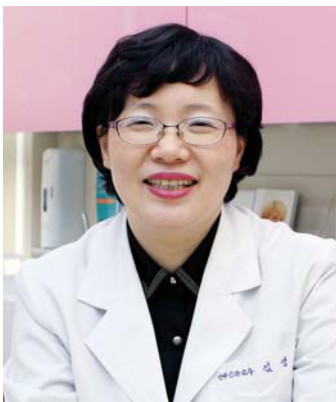
미숙아, 치매 발병위험 높다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쥐 실험 확인
조산·저체중 등 미숙아 肝
대사질환 후보 단백질 발견

국내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조산이나 자궁내 발육 지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간에서 성인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사진) 교수팀은 50% 저식이군의 어미 쥐에서 태어나 3주 동안 정상식이를 한 새끼 쥐의 간을 프로테오믹스 방법으로 분석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수컷 아기 쥐들의 간은 단일 탄소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메틸렌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디하이드로제나아제 1(Methylentetrahydrofolate dehydroge-nase 1; MTHFD1)과 S-메틸트란스페라제 1(S-methyltransferase 1; BHMT1)의 농도가 정상 쥐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효소들은 혈액 속의 높은 호모시스테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호모시스테인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암컷 아기 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 중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대사질환 즉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성인지적 차이(Gender-difference)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김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 5월에 태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비만 마커를 발견한데 이어 또 한번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의 위험성을 알수 있는 연구"라며 "미숙아가 비만뿐 만 아니라 고호모시스테인혈증(Hyperhomocysteinemia)에 의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이 정상아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분자 세포 프로테오믹스(Molecular and Cellular Proteomics)' 인터넷판 9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대목동병원 김교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간행위원회 위원장과 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의 다양한 치료와 예방에 힘써 왔다. 또한 전국 2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산 위험 임산부 대상의 다기관 공동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행복기숙사' 공실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행복기숙사' 대체숙박시설로 2모작

한국관광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과 MOU
동·하계 기숙사 공실 활용
운용수익으로 '반값 기숙사'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과 지난 11일 원주 본사에서 '행복기숙사'의 대체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동·하계 대학 기숙사 공실을 활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학생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해 기숙사 비를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이른바 '반값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운용했던 매뉴얼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내외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쾌적하고 편리한 행복기숙사의 수용태세 구축과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2개 신규 기숙사 개관을 통해 동·하계 성수기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 4000여명을 추가로 수용 가능한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2017년까지 총 1만 7000여명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된다.

재단은 올해 12월부터 예약,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두 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업계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벤처팀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적 협업 사업으로서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치선 기자

竹林의 청량한 가을바람이 전하는 힐링테라피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힐링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각박한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숲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은 가을 여행의 대표적인 테마가 됐다.

사람이 붐비는 곳 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여유롭게 즐기는 힐링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산책하기 좋은 대나무 숲이나 코스모스 길, 수련 정원, 고즈넉한 산사 등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지역의 힐링 축제가 주목 받고 있다.

죽녹원 내부

◆사계절 내내 푸른 대나무 숲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힐링

담양은 보기만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과 공기가 맑기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힐링하기 좋은 곳이다. 담양에는 널리 알려진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담양호, 관방제림 등 둘러볼 곳이 많다. 특히 CF와 영화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메타세쿼이아길은 지난 달 전국 가로수길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45일간 열린다. 푸른

17일~내달 31일까지 축제
곧게 뻗은 대숲 걷노라면
생활에 찌든 몸·마음 정화

대숲에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박람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감상하는 등 오감을 통해 대나무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행사다.

대나무 숲에서 즐기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널리 알려진 죽녹원에서는 관람객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줄 동선 별 테라피 로드가 마련된다. 죽녹원의 대나무 숲길은 산책하기 좋게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샛길, 추억의 샛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등 각각의 테마를 가진 8개의 길로 조성돼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 숲에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을 느껴볼 수 있는 풍욕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박람회 기간에는 박람회 티켓으로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죽녹원을 비롯한 담양의 이곳저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 문의: 대나무 박람회 홈페이지(www.damyangbamboo2015.kr) /최치선기자

74만명 동문네트워크, 추억 공유 프로젝트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 넌 감동이었어!'
내달 2일까지 SNS 공모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는 재학생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대, 넌 감동이었어!' 추억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방송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nouNO1)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방송대 캠퍼스 곳곳에 숨어있는 나만의 추억, 동기와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 등 학교에서 생긴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방송대 페이스북 내 이벤트게시 밑 댓글로 올리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이. 댓글로 남긴 사연 가운데 가장 많은 라이크 수를 획득한 참여자 50명에게 대학로 CGV에서 상영하는 '인턴' 영화초청권 1인 2매를 증정한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넌 감동이었어!'추억 공모 이벤트 포스터.

방송대 이동국 총장직무대리는 "43년간 74만 명의 동문·학생 네트워크를 보유하며 메가 유니버시티로 성장한 방송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이 모인 평생교육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개인별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며 "동문들에게 소개 하고 싶은 나만의 추억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무림학교' 출연 확정

배우 **이현우**가 KBS2 새 월화극 '무림학교'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키이스트가 14일 전했다. 이현우는 극중 대한민국 최고 아이돌 그룹 리더 윤시우 역을 맡았다. 내년 1월 중 첫 방송될 예정이다.

英 더 가디언 호평

올 가을 미국 데뷔를 앞둔 가수 **씨엘**이 영국 유력지 더 가디언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더 가디언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씨엘은 획일화된 사회 속 확실한 개성을 지닌 케이팝 아티스트"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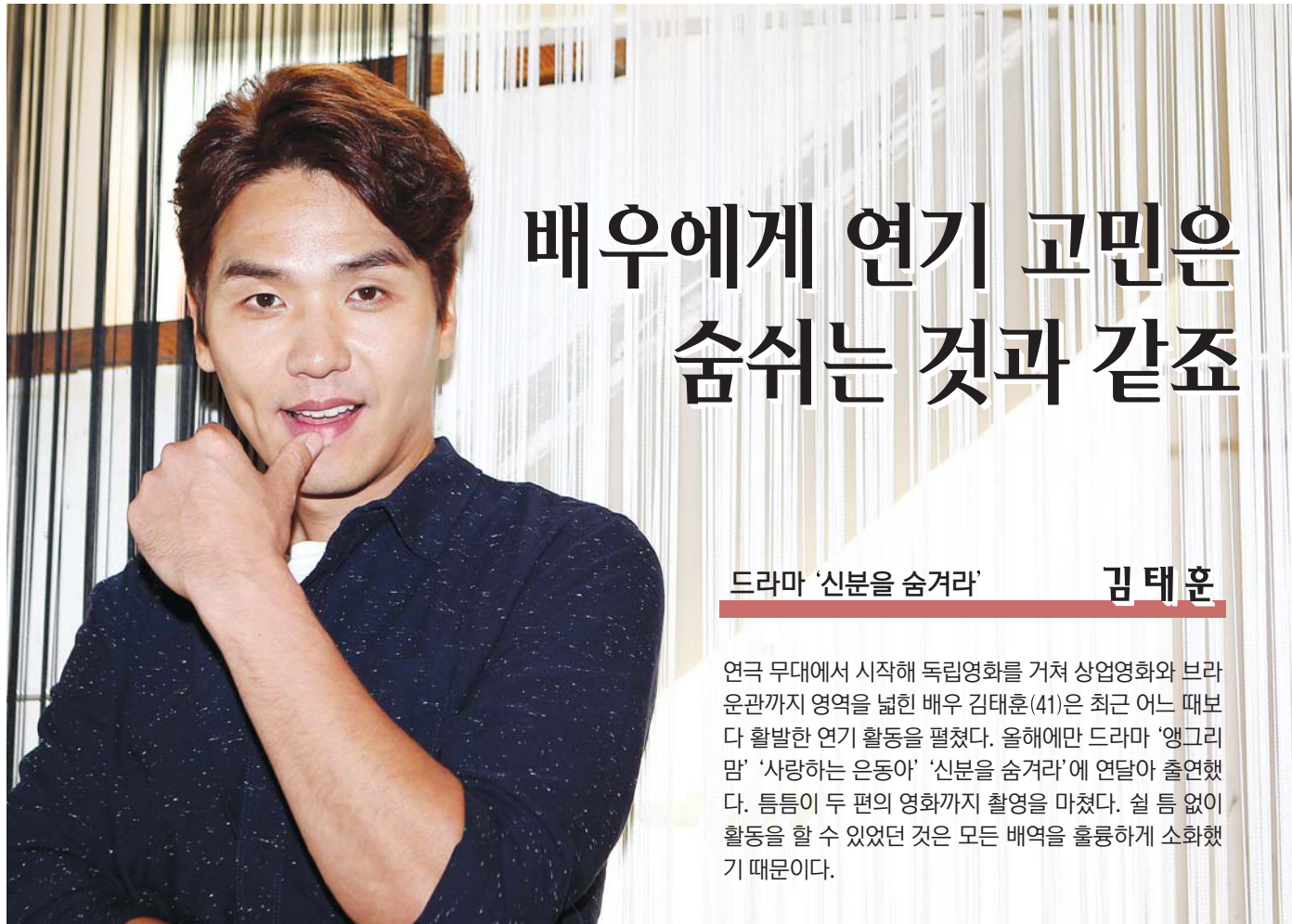
팬과 27번째 생일 파티

배우 **이종석**이 팬과 함께 2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13일악스코리아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종석은 "정말 떨렸지만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씨제스와 전속계약

뮤지컬 배우 **강홍석**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강홍석은 지난해 '킹키부츠'로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데스 노트'의 류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첫사랑'으로 컴백

걸그룹 **베리굿**이 오는 23일 새 싱글 '첫사랑'으로 컴백한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슴 아픈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이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본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배우에게 연기 고민은 숨쉬는 것과 같죠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 **김태훈**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독립영화를 거쳐 상업영화와 브라운관까지 영역을 넓힌 배우 김태훈(41)은 최근 어느 때보다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만 드라마 '앵그리맘' '사랑하는 은동아' '신분을 숨겨라'에 연달아 출연했다. 틈틈이 두 편의 영화까지 촬영을 마쳤다. 쉴 틈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했기 때문이다.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태훈은 연기에 대한 큰 갈증을 가진 배우였다. 일상에서도 늘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작품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기복도 심하고요. 연기를 좀 더 잘 하고 싶어서 항상 고민이에요. 가령 보편적이지 않은 인물을 표현할 때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압박이 커지기만 하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김태훈에게 연기는 도전 그 자체다. 스스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대상에 만족하고 싶어서 다가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작품을 할 때마다 도전적인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 '앵그리맘'에서는 인면수심의 악인을, '사랑하는 은동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갖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인물을, '신분을 숨겨라'에서는 악인을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인물로 변신했다.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나 천사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물이 살아온 삶에 따라 다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앵그리맘'의 도정우는 출생에 얽힌 상처들 때문에 악으로 물들게 된 거고요. '사랑하는 은동아'의 최재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진실을 숨긴 것 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연기해요."

> 악역·선역 넘나들며 연기 변신 소화
> 배우로서 진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
> 아직 스스로 만족한 작품 해본 적 없어

그를 보면 배우가 가져야 할 정석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느껴진다. 배우로서의 진가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열등감'이라고 단언했다. 엉뚱하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정말이에요. 나는 왜 연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배우가 되고 나서는 아침에 눈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숨쉬듯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해요. 단순히 연기를 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청자나 관객이 공감하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자학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것은 인터뷰 내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진중함 속에서도 부드러움과 상냥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배우로서 또 다른 진가가 자신의 얼굴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는 연기에 대한 고민을 즐길 줄도 아는 천상 배우의 자질을 지녔다는 것일까.

영화와 드라마, 연극 무대까지 포함하면 배우로서 벌써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태훈은 아직 '잘 했다 싶은 작품'이 없다며 부끄럽다고 말한다.

"보는 분들이 공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작품의 한 역할을 담당해서 잘 전달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걸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죠. 이상적인 작품일 테니까요. 그래도 그런 작품에서 연기를 잘 하면 한 번 정도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영화 '궁합' 길일에 첫 촬영 개시

'관상' 이은 역학 시리즈 두 번째 작품

'관상'에 이은 역학 시리즈 두 번째 사극영화 '궁합'(감독 홍창표)이 지난 9일 크랭크인했다.

'궁합'은 궁중의 정해진 혼사를 거부하는 송화옹주(심은경)와 각기 다른 사주를 가진 부마 후보들의 궁합을 보기 위해 입궐한 최고의 궁합가 서도윤(이승기)의 기막힌 운명을 그린 영화다. '관상'을 만든 주피터필름이 제작하는 작품이다.

첫 촬영을 앞두고 이승기는 "스크린을 통한 사극은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 대본을 받아서 읽은 순간부터 흠뻑 빠져들었다. 연기 궁합도 잘 맞고 촬영장 분위기도 매우 좋다.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은경은 "'광해, 왕이 된 남자' 이후 도전하는 사극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여자가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에 눈 뜨는 모습이 이 작품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다. 연기에 몰입해 최고의 연기 궁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궁합'은 이례적으로 9월 9일 9시9분에 크랭크인했다. 제작사 측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보편적인 길일 중에 주연 배우 심은경, 이승기의 태어난 사주팔자와 궁합적으로 잘 맞는 좋은 날을 택했다"며 "9는 튼튼함, 확고하고 단단함과 복, 귀함, 결실, 성취와 영원함, 최고조를 뜻하는 길한 숫자라서 크랭크인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궁합'에는 심은경, 이승기 외에도 연우진, 김상경, 박선영, 강민혁, 최우식, 조복래, 최민호 등이 출연한다.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이승기

신은경

프랑스 전역에 한국문화 꽃핀다

현대차 두번째 후원 시리즈 국립현대미술관 '안규철展'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차 시리즈 두 번째 전시로 '현대차 시리즈 2015: 안규철-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전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안규철 작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대안적 가능성을 추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8점의 장르 융합적인 신작을 통해 이 시대와 미술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시 제목인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는 마종기 시인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부재하는 것들의 빈자리를 드러내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한불 수교 130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 18일 개막

1886년 프랑스와 수교한 이래 양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2016년)를 기념하고자 마련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본격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를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랑스내 한국의 해 행사는 내년 8월까지 이어지면서 공모·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149건(시각예술 43건·공연예술 68건·영화 22건·문학 7건·기타 12건)의 공식인증사업이 파리·낭트·마르세유·리옹·릴·니스 등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진다. 한국내 프랑스의 해 행사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계속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공식방문 기간에 맞춰 국립 샤이오 극장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에는 프랑스 측 외교, 문화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개막 공연으로는 한국문화 최초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1호)이 무대에 오른다. 종묘제례악 전편이 해외에서 온전하게 공연되는 것은 처음이다.

종묘제례악.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분야에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예술인 판소리, 굿, 정악, 연희에서부터 재즈, 일렉트로닉까지 총 68건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무용단의 '회오리', '최승희 트리뷰트'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축제 중 하나인 '파리가을축제'에는 안숙선, 김금화, 안은미, 진은숙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초대됐다.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은 국립장식미술관에서 공예, 패션, 디자인분야로 나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151명의 작가, 1400여 점의 작품이 4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개막된 국립현대미술관 뉴미디어아트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에서는 백남준, 박현기, 정연두, 임흥순, 진기종 등을 포함한 33명의 작가 41점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한국 뉴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조망한다.

프랑스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시 공간인 파리 그랑팔레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도자전'이 열린다.

파리의 대표적인 영상미디어센터 포럼 데 지마쥬는 서울을 주 소재로 한 한국영화 76편을 상영할 계획이다.

한국 측 조직위원회 최준호 예술감독은 "프랑스 국민들이 일상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양국 문화예술 교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전 국민의 추억 김밥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즐겁고 유쾌한 추억으로 전 국민과 함께 해온 김밥 만드는 법을 살펴본다. 김밥의 기본은 속 재료 준비다. 간 맞추기부터 옆구리가 터지지 않게 마는 황금비율을 공개한다. 또한 만능간장 김밥부터 명란젓 김밥, 참치마요 꼬마김밥, 돈가스 누드 김밥 등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김밥 요리법을 소개한다. 김밥을 마는 다양한 스타일도 만날 수 있다. 제자들의 4인 4색 김밥 말기 대결도 펼쳐진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서인천고등학교 편 세 번째 이야기다. 첫 등교한 샤킬 오닐은 학생들의 돌직구 질문 공세에도 쿨하게 답변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들에게 1대1 농구강의도 펼친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배우 김보연이 전격 합류한다. 김국진에게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고백하며 강수지를 긴장케 한다. 김국진의 고향 강원도 인제로 여행을 떠나 가을 분위기를 만끽한다.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오후 9시40분

데이트 비용에 대한 어른들의 고민을 동심으로 풀어본다. MC 이휘재는 아내 문정원과의 결혼 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는다. 이국주가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에 대한 고민을 밝힌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일(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 대 100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식톡락 테라피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재) 10:25 유자식상팔자 (재) 11: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4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문제적 남자 (재) 11: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재) 06:30 그림있는 집 (재)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재)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재)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4:00 우리말 겨루기 (재) 15:05 다큐 공감 (재)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야생일기 (재) 16:20 TV, 책을 보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프로야구 중계석 (재)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0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40 두번째 스무살 (재) 16:00 두번째 스무살 (재) 17:20 명단공개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재)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15:30 적중창업 (재)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독립영화관	18:00 KBS 글로벌 24 18:30 2015 프로야구 22:00 별난 며느리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뮤비뱅크 2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PD수첩 24:10 MBC 뉴스 24 24:20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미세스캅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내 나이가 어때서 23: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2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19: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재) 21:30 그림있는 집 S2 (재) 22:30 Boy's Toys (재) 23:00 이색적인 이사 (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재)

리디아 고, 역대 최연소 메이저퀸 등극

만 18세 4개월 20일 에비앙 챔피언십서 최연소 우승기록 경신

최근 2~3년 동안 세계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10대 선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그 새로운 주인공이다.

리디아 고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벵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 클럽(파71·6453야드)에서 열린 에비앙 챔피언십 골프대회(총상금 325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파타로 정상에 올랐다.

1997년 4월생인 리디아 고는 18세 4개월 20일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종전 최연소 메이저 우승 기록은 2007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모건 프레슬(미국)의 18세 10개월 9일이다. 리디아 고는 이 기록을 5개월여 앞당겼다.

13일 프랑스 에비앙 레벵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 에비앙 챔피언십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리디아 고가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리디아 고는 최연소 메이저 우승 기록을 세웠다. /AP 연합뉴스

이날 대회에서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오르면서 역대 세계여자골프에서 만 20세가 안된 나이에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한 선수는 6명으로 늘었다.

리디아 고와 모건 프레슬 이외에도 여자골프에서는 4명의 10대 메이저 챔프가 있다. 이번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리디아 고와 우승을 다퉜던 렉시 톰프슨(미국)은 2014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19세 1개월 27일의 나이로 먼저 정상에 올랐다.

그 다음 최연소 메이저 우승 기록은 김효주(20·롯데)가 갖고 있다. 김효주는 작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19세 2개월에 우승했다. 쩡야니(대만)는 19세 4개월 6일(2008년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19세 11개월 17일(2008년 US여자오픈)의 나이에 각각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가 더 대단한 것은 만 20세도 안된 나이에 이만큼 우승을 많이 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리디아 고는 LPGA 투어 9승을 포함해 각국 투어에서 13승을 올렸다. 이중 2승은 아마추어 시절 LPGA 투어에서 올린 승수다.

10대 메이저 챔프 출신 중 승수면에서 리디아 고를 앞선 선수는 쩡야니와 박인비다. 쩡야니는 LPGA 투어 15승을 포함해 27승을 올렸다. 박인비는 2012년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우승으로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LPGA 투어에서만 16승을 올렸다. 이 중 메이저 우승컵만 7개를 가졌다.

리디아 고는 아직 박인비를 따라가기에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천재 골프 소녀'라는 별명에 걸맞게 '메이저 우승컵'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춘 만큼 앞으로 그가 이룰 기록들은 많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추신수, 시즌 18번째 홈런포

강정호, 36번째 멀티 히트 기록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 텍사스의 추신수가 1회말 솔로 홈런을 친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AP 연합뉴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8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다. 0-0이던 1회말 첫 타석에서 오클랜드 왼손 선발 투수 펠릭스 두브론트의 초구 빠른 볼(시속 146㎞)을 퍼올려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그렸다.

이날 추신수의 홈런은 지난 8일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 후 5일 만에 터진 홈런이다. 비거리는 129m로 측정됐다.

추신수는 홈런 이후 안타 2개를 추가해 4타수 3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을 0.259(479타수 124안타)로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12-4로 낙승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36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같은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다. 5타수 2안타로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90(411타수 119안타)으로 올랐다.

피츠버그는 6-6이던 연장 11회말 1사 2, 3루에서 터진 조시 해리슨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3연승을 달렸다. /장병호 기자

아쉬운 데뷔전

13일(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과 선덜랜드의 경기. 토트넘 이적 후 데뷔전에 나선 손흥민이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 토트넘 이적 후 첫 경기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16분 교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23)이 데뷔전을 마친 뒤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다"며 아쉬움 담긴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13일(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와의 원정 경기가 끝난 뒤 "처음 경기에서 뛰게 돼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토트넘의 공식 트위터는 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후반 16분 만에 교체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 뒤 라이언 메이슨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팀이 시즌 첫 승을 거둬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는 경기후 손흥민에 대해 '조용한 데뷔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후반 초반에 교체됐다"며 평점 5를 줬다. 또한 영국 축구전문지 포포투는 "손흥민이 데뷔전에서 62분 동안 뛰면서 '비교적 조용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아주 잘 뛰었기 때문에 만족한다"며 "우리 팀을 위해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다. /장병호 기자

삼성 '완벽한 우승'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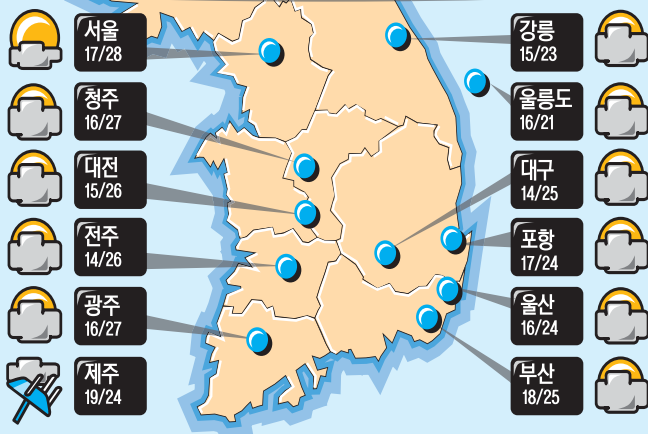
주중 80승 선점 전망 5년 우승 향한 스퍼트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도 '완벽한 우승'을 꿈꾼다.

통합 5연패가 목표인 삼성은 10승을 선점했고 20승, 30승 등 10승 단위의 승리를 가장 먼저 쌓았다. 14일 현재 79승 50패로 80승에 1승만은 남겨놓은 상황이다. 2위 NC 다이노스는 74승(2무 52패)을 기록하고 있어 80승 선점도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연합뉴스

역대 최다인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 시즌에는 '80승'이 우승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NC도 80승 달성은 시간문제다.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까지도 80승 고지를 바라본다. 하지만 80승 선점이 거의 확실한 삼성은 여유가 있다.

사실 삼성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우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동일 팀이 10승 단위 승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점하며 우승한 건 총 6차례에 불과하다. 삼성은 21세기 최초로 10승 단위 승리를 모두 선점하는 기록을 세우고, 5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 확정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시작하려 한다. /장병호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1
6					7	5		2
	2		5	4			7	
9	6			3				
			6		4			
				8			9	3
	8			7	9		6	
1		4	2					9
3						7		8

	8		3		6	9		4
	9	2		5				
	6							5
2	1			8		3		
			5		7			
		8		3			9	2
7							1	
				7		2	5	
6		3	1		2		7	

스도쿠 정답

4	5	7	9	2	6	8	3	1
6	3	9	8	1	7	5	4	2
8	2	1	5	4	3	9	7	6
9	6	8	7	3	2	4	1	5
5	1	3	6	9	4	2	8	7
7	4	2	1	8	5	6	9	3
2	8	5	3	7	9	1	6	4
1	7	4	2	6	8	3	5	9
3	9	6	4	5	1	7	2	8

5	8	7	3	1	6	9	2	4
3	9	2	7	5	4	6	8	1
1	6	4	2	9	8	7	3	5
2	1	5	4	8	9	3	6	7
9	3	6	5	2	7	1	4	8
4	7	8	6	3	1	5	9	2
7	2	9	8	6	5	4	1	3
8	4	1	9	7	3	2	5	6
6	5	3	1	4	2	8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owe you a big one

A: I heard you have a friend who owns a game company.
B: Yeah, Jas. He's a pretty cool guy. What's up?
A: Do you know if he's hiring?
B: Not sure, but I can ask him. Why?
A: You know how much I love to play games, and I thought it would be fun to work at a game company.
B: Yeah, but I don't think it's all fun and games. Jas always seems to be under stress.
A: You know what they say? Nothing in life is easy.
B: Ain't that the truth.
A: Do you think you can introduce me to Jas and maybe get me an interview?
B: Sure, I'm supposed to have lunch with him this week. I'll introduce you two.
A: Thanks, **I owe you a big one.**

크게 신세졌다

A: 너 게임 회사 운영하는 친구 있댔지.
B: 응, Jas라고. 꽤 괜찮은 친구야. 왜?
A: 혹시 사람 뽑는지 알아?
B: 잘 모르지만 물어볼 순 있어. 왜?
A: 나 게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 게임회사에서 일하면 재밌을 거 같아서.
B: 응, 근데 늘 재밌고 게임만 하는 건 아닐 텐데. Jas는 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
A: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인생에 쉬운 일은 없다고.
B: 암. 만고의 진리지.
A: 나 좀 Jas한테 소개시켜줘서 면접 좀 보게 해줄 수 있어?
B: 고럼. 이번 주에 점심 먹기로 했거든. 소개해 줄게.
A: 고마워. **신세 크게 졌다.**

* ain't: 비표준어, be동사 + not의 축약형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거듭된 이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올 말 기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쭈꼬미 여자 83년 6월 26일 양력 15~16시

Q 이성을 오래 못 만나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83년 양력 6월 26일 오후 3~4시 여자 쭈꼬미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나 마음과 달리 남자에게 마음을 못 열고 막상 마음을 열어서 사귀게 되어도 오래 못 사귀고 헤어집니다.

최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귄 사람과 1년을 못 채우고 헤어져 괴롭습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까요.

A 팔자 술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시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노력하면 다 잘된다는 말은 풋내기들의 말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한 개인의 강력한 의지나 실천조차 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운이 지극히 저조할 경우 어떤 분발심도 나타나지 않고 한 없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연적인 예지 능력을 타고 납니다. 즉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말은 사회생활 하는데 뿐만 아니고 남녀 간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문구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축복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연애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연애가 지속되기도 힘든 이유는 불 같은 질투의 화신이 귀하를 해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꾸 불신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날 왜 믿지 못하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습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상 꿈과 희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만나기 전 30년 이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점과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맞추라고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 사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올해 말에 다시 한 번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또 놓치면 2019년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5일 (음 8월 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많은 이동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입 조심하세요. **72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았으나 능력부족으로 입사하기 곤란합니다.

49년생 지나친 자만심을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61년생** 어린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0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62년생**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74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6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51년생 두서 없는 행동이 어찌 이뤄지겠는가. **63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75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87년생** 운세가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5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64년생** 곧 나아지니 휴식하세요. **76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8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겠습니다.

53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5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77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길합니다. **89년생** 하는 일마다 잘 안될 것입니다.

54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66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8년생**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90년생** 허황된 생각을 버리세요.

55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67년생** 집매매 귀인이 나타납니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1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56년생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건강하세요. **68년생**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80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92년생**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57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9년생** 새로 만난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합니다. **81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58년생 꾀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70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들끓습니다. **82년생** 계속 움직이심이 길합니다. **94년생** 투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59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3년생** 소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95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잘 배우도록 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살아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감사할 만하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 이처럼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불평불만을 하거나 좌절을 할 수 있는데도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백 투 더 퓨쳐(Back To The Future)로 유명한 마이클 제이 폭스(Michael J. Fox)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파킨스씨 병으로 고통을 겪는 과정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한다.

조니 에릭슨 타타(Joni Eareckson Tada)는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목이 손상되어 사지마비인 상태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해 주고 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교도소 생활을 하였지만 다시 겸손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사업이 어려워도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위기가 주어진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도 없는데 감사를 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주변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감사가 먼저이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따라 온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대상이 분명하면 그 대상인 가족, 친구, 친지, 스승 등에게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모른 채로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영성(spirituality)이다. 여기서 영성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상, 요가, 기 수련, 종교, 힐링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영성은 감사의 대상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영성의 추구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서 관련 산업도 번성하고 있다. 기업들도 기업경영에 영성의 추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영성(spirituality)의 시대라고 부른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명상이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노크해 왔고 이것을 사업에 접목시켰다. 참고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영성과 관련해서는 짝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社說

최경환 부총리의 '절반의 성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추진력을 얻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도달했다. 정부가 추구해 온 '노동유연성', 다시 말해 '해고하기 쉬운 나라'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은 아니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았으니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해 온 '해고하기 쉬운 나라'의 원칙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정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 고무된 듯하다. 그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 문제도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14일 이번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5가지 관련법을 16일 당론발의할 방침이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의 '마법'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마무리지을 것이다. 그러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14일 한국노총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또 금속노련과 화학 노련이 이번 '대타협안'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해고하기 쉬운 나라'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타협'을 빌미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이다.

국감장에 피감기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기자 수첩
연 미 란
<사회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 10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공방 국감이 또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찰이 늑장 수사·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김현웅 법무부 신임 장관에게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3개월 차에 접어든 김 장관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보고 받기로는…확인해 보겠다"고 메아리처럼 말했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의 비난은 이유가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고 날을 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대해서만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재는 봐주고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새정연 측에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의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이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은 뒤이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다시 야당은 "문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대응한다.

검찰을 두고 여야가 돌아가며 '봐주기'를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또 있다. 피감기관이 없어도 국감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감 자리가 여야의 난타전을 위한 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더 이상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여야 정쟁으로 정작 언급됐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중요 논제 거리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는 주장만 난무했고, 국감장에서 주인공이 됐어야 할 피감기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피자 2조각, 하루 나트륨 권장량 육박

소비자 119

피자의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마다 영양성분 차이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14개 피자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콤비네이션 피자의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시험한 결과, 150g짜리 피자 1조각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5.78㎎으로 브랜드별로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고 14일 밝혔다.

나트륨 함량은 피자에땅 524.99㎎, 피자알볼로 533.46㎎ 같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파파존스피자 803.30㎎, 홈플러스피자 748.20㎎, 미스터피자 740.73㎎ 같이 대형브랜드나 대형마트 제품들이 많았다.

피자 1조각 기준으로 포화지방 함량은 평균 6.68g으로 브랜드별로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지방 함량은 평균 15.0g으로 브랜드별로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포화지방, 지방 모두 도미노피자가 가장 적었고, 오구쌀피자와 미스터피자가 가장 많은 브랜드였다.

이를 기준으로 식사를 대신해 피자 2조각을 먹었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1311.56㎎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2000㎎의 65.6%, 포화지방은 13.36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15g의 89.1%, 지방은 30.0g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 51g의 58.8%를 차지하게 된다.

나트륨·포화지방·지방을 과다섭취 할 경우 비만과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성인병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포화지방, 지방 등을 과다섭취하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한 12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대비 최대 717.1% 차이가 나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콤비네이션 피자는 포화지방 함량을 0.7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측정값은 5.02g으로 차이가 가장 컸다.

/이예진 기자 green@

인사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 △노사협력정책과장 정경훈 △강원지청장 김영미 △울산〃 이철우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윤옥균 △노동시장정책과 박병기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대술 △고용서비스정책과 이도경 △직업능력정책과 홍석원 △근로기준정책과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남정 △운영지원과 전현철 △광주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 장영조 <기술서기관 승진>△산업안전과 김선철 △산업보건과 김정연 <전보>△대구고용센터소장 유한봉 △고객지원팀장 김우동 △외국인력담당관 최준하 △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성남지청장 황계자 △안양〃 서호원 △창원〃 최관병 △대구서부지청장 함병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권호안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이용형

◇뉴시스 대구경북본부 △부장 추종호 (경북 구미·김천·상주)

부드러움이
쏟아지는
해변으로가요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